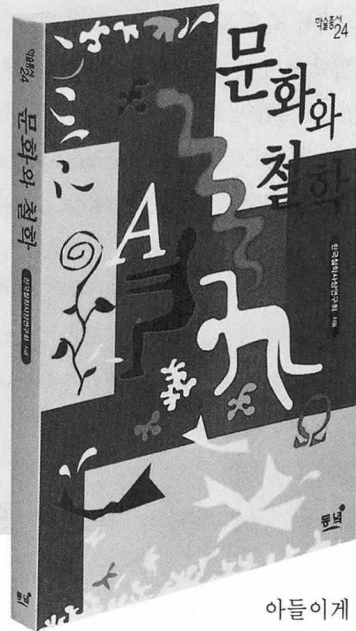


일상화된 대중문화의 철학적 독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와 철학》

이성훈 | 경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동남/A5신/322면/10,000원



젊은 철학자들이 생동감있는 주제를 다룬 《문화와 철학》을 펴냈다. 이 책은 영화에서 대중음악까지, 섹슈얼리티에서 가상현실까지, 소비사회에서 정보사회와 생태사회까지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토픽들을 망라하고 있다.

문화범람에 대한 철학적 분석

9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받는 강렬한 인상은 대중문화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엄습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몇 년 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작스런 해체에 대해서도 시대의 떨미를 겪은 바 있지만, 요즘의 문화범람에 대해서도 현기증을 느낀다. 철학자들 역시 시대의 변화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90년대에 들어와 모든 것이 이른바 문화와 정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많은 젊은 철학자들이 이념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강의나 연구방향에서 문화로 전향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보여준 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책으로 종합됐다는 생각에 우선 기쁘기도 하지만, 철학적 사유가 과거와 같이 거대담론으로 연명할 수 없다는 시대적 사실을 자인하고 공개적으로 문화로 넘어가는 모습에 연민과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적 감정에 앞서서 왜 철학마저 대중문화를 자신의 학적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이다.

이것이 곧 문화지형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책의 제목에 나와 있고, 내용을 거의 채

우고 있는 '문화'는 종래의 문화철학이 다루던 그런 고답적이고 고급스런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문화는,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문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소비하고 빠져드는 그런 문화, 나의 삶에 어떤 권위 있는 지침을 내려주고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는 그냥 아기자기한 재미와 소소한 각광의 순간을 안겨주는 대중문화다.

과거에 문화 개념을 지배했던 고급예술이 수용자에게 '네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준엄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대중문화의 소비자들은 대중문화에서 재미와 자극과 각광 등의 약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문화에서 유토피어나 다른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문화에서 동일한 일상의 다른 연출, 동일한 일상의 반복으로부터 찰나적인 일탈을 꿈꾼다.

일상생활의 인지적 지도그리기

이렇게 해서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말처럼 문화는 일상적으로 됐다. 이제 우리를 일상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대중영화와 음악, 광고나 디자인 등의 상품미학, 만화·영상기호·시각이미지·스펙터클한 공간·테크노 혹은 사이버 문화 등이고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기호·이미지·정체성·성·이데올로기·권력·미시정치학 등의 달라진 연구각도를 형성한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삶 및 세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

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작용 방식들 중 하나가 됐다. 현대의 문화분석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층위의 도전이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중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도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인지적 지도그리기며 대중문화 시대의 새로운 인간학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철학적' 시각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 철학적 시각은 종래의 철학이론 학습을 통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철학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끌어내야 한다. 대중문화를 철학적으로 읽어내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장차 태어날 하나의 명료한 철학이론을 위한 개념들을 구상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문의 탈식민지화를 위해 걸어야 할 길이고 철학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문화와 철학》이 시도하고자 하는 일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 철학은 구름 위에서 굽어보다가 저갯거리로 나섰다. 하긴 바로 이것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런 시도가 또 하나의 처세이자 유행인지 아니면 삶에 육박하고자 하는 철학의 몸부림이 될 것인지는 결국 글의 깊이와 날카로움에 입각해 판단할 문제다. 《문화와 철학》은 철학이 시대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